

2026 제3호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

석촌호수 벚꽃에서 찾는 시의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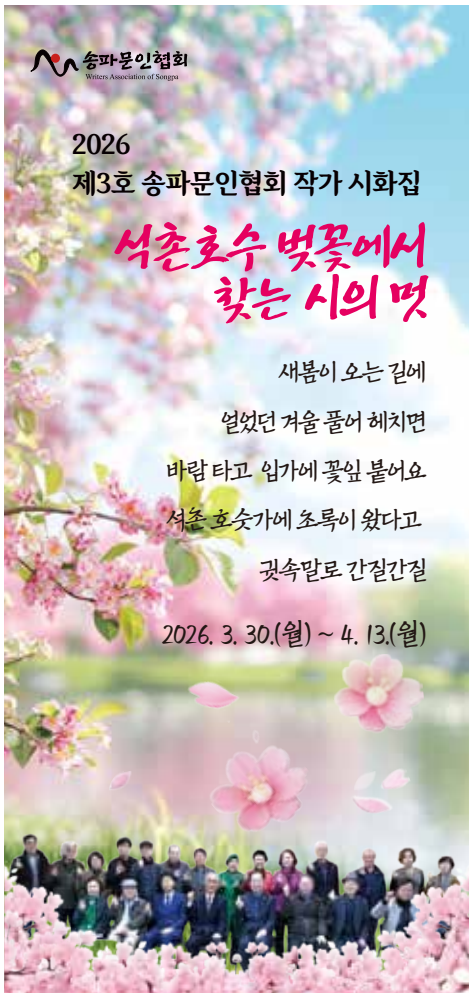
2026. 3. 30. ~ 4. 13. 서울 석촌호수 서호

가철노	김진돈	배종선	신종식	이효성	조기엽
김도이	김현신	백재현	양순복	임영화	조은재
김사라	남춘길	서주문	이명림	전세중	차효범
김예숙	민숙영	손 형	이은수	전 정	최균희
김유경	박경남	송수복	이주성	전한태	최성준
김종화	방정숙	신경삼	이한재	정문수	하갑문
				정옥화	한윤희



목 차

권두언_ 전 세종 (송파문인협회 회장)	5
축 사_ 김 현신 (고문, 송파문화원장)	6
축 사_ 김 진돈 (고문, 송파구한의사회장)	7
격려사_ 최 균희 (고문,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8



	가, 나, 다, 순	
가철노_ 호수에 벚꽃 웃음, 벚꽃 세상		10
김도이_ 꽃 피는 이명		12
김사라_ 칸나(2), "아들에게"		13
김예숙_ 내안의 어머니에게		15
김유경_ 수선화		16
김종화_ 송파예찬		17
김진돈_ 봄날		18
김현신_ 바람꽃은 신음입니다, 라일락 꽃잎으로 내리는 비		19
남춘길_ 이른 봄		21
민숙영_ 사는일		22
박경남_ 오리의 문장		23
방정숙_ 나를 사랑하는 연습, 벚꽃		24
배종선_ 바람		26
백재현_ 성당의 산책로, 누구시더라		27
서주문_ 세상을 살면서, 그리움		29
손 형_ 삶의 울림		31
송수복_ 꽃샘추위, 마중물		32
신경삼_ 내 사랑 별이 되다		34
신종식_ 봄비		35

양순복_ 저 빛나무의 꽃잎이 되어, 세량지의 별	36
이명림_ 남미로 가는 길	38
이은수_ 나무는 죽어서 말한다	39
이한재_ 봄이 오는 길목, 낮은 곳의 위로	40
이효성_ 오메, 어찌끄나	42
임영화_ 봄과 봄날 사이	43
전세중_ 울진 아리랑, 불타는 인형	44
전 정_ 연두빛 날	46
전한태_ 수증사에서, 2025년의 마지막 날	47
정문수_ 석촌호수는 흐르고 싶다	49
정옥화_ 고맙습니다, 물 봉선화	50
조기엽_ 한국바람(한류), 파도야 파도야	52
조은재_ 유목민	54
차효범_ 구름바퀴	55
최균희_ 들꽃향기, 허수아비와 소년	56
최성준_ 감기	58
하갑문_ 한 송이 꽃, 다시 보니	59
한윤희_ 겨울 분수	60
송파문인협회 연혁	62

제3호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을 발간하며



송파문인협회 회장 전세중

봄이 오면 송파의 하늘은 더욱 맑아지고, 석촌호수의 물가에는 벚꽃이 구름처럼 피어나 장관을 이룹니다.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펼쳐 보이는 이 계절에, 송파문인협회는 시화전을 개최하고 그 뜻깊은 작품들을 모아 제3호 작가 시화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 시화전 주제는 “석촌호수 벚꽃에서 찾는 시의 멋”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원 37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총 51편의 시화를 선보입니다. 한 편 한 편의 작품에는 시인의 사유와 삶의 깊이, 그리고 송파의 자연과 계절의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는 짧은 언어로 긴 울림을 남기며,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봄의 정취를 전하듯, 이 시화집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독자들의 마음속에 조용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문학은 시대를 넘어 사람과 사랑을 이어주는 정신의 등불이며,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화집이 송파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학의 향기를 함께 담아내는 뜻깊은 기록이자, 지역 문학의 발전을 이끄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화전 참여와 시화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대한 송파문인협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 갑시다. 송파문학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굳은 의지로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문학의 향기, 꽃으로 피어나다.

- 석촌호수를 수놓은 시화전을 축하하며



본회 고문, 송파문화원장 김 현 신

벚꽃이 만개한 봄꽃의 계절에 석촌호수에서 열리는 『송파문인협회』 시화전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에서 문학의 꽃을 피우며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문학인의 길을 걸어오신 『송파문인협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물들인 ‘송파의 봄’은 시화의 꽃으로 송파구민들의 가슴에 기쁨과 ‘정서의 꽃’으로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시된 작품들은 작가님들의 심상에 깊이 숨어있는 언어를 미적 언어로, 예술적 언어로 꽃피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바쁜 일상에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집필의 고뇌를 이겨내며 창조적인 정신으로 문학인으로서의 길을 걷는 『송파문인협회』 회원님들의 작품들이 시화전을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공감으로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석촌호수를 물들인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빛내주신 작가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석촌호수를 찾는 구민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물결로 문학의 수놓을 놓는 소중한 정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송파의 봄을 시화로 장식하느라 수고해 주신 전세중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느라 고생하신 회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일상이 문학이 되고, 삶이 문학이 되는 큰 역할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문학의 향기 가득한 송파의 봄이 되기를 바라며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호 시화집 발간을 축하하며



본회 고문, 송파구한문인협회장 김진돈

화창한 봄날,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사화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팍팍한 시대에 잠시 머무르며 시화전을 감상하면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화전은 송파문협 회원들이 각자의 작품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한 가지가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자존감을 살리고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짧은 심포와 멈춤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잠깐 명상을 하거나, 시나 고전 한 편을 읽거나, 산책은 놀라운 기적은 아닐지라도, 조급함과 분노를 조절하면서 삶 또한 편안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 놓치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느낌으로 시화전 감상을 통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大學』에 머무를 데를 안 이후에야 정함이 있고, 정한 이후에 능히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이후에 능히 편안하며, 편안한 이후에 능히 생각하며, 생각한 이후에 능히 머무를 데를 얻을 수 있다(知止而後有定, 定而後能靜, 靜而後能安 安而後能慮, 慮而後能得) 이는 반드시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잠깐 멈춤의 시간이며 혼자만의 시간이며 성찰의 시간이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최고 자리에 오르더라도 작은 기미를 알아채거나, 주변의 충고를 알아듣고 곧 자리를 떨치고 내려온 사람이 장횡거와 범수인데, 지지(知止)의 덕목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멈춤을 알 때 그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AI(인공지능)과목 수업에서 ‘컴퓨터 언어’ 보다 ‘인간의 언어’에 집중하는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AI에도 의미와 맥락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이는 동료나 AI와 소통 능력을 요구받는 인문학 시대가 열리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판단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문학 전공자를 다시 우대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기사, AI시대, 향후 5년 내에, 현재 업무의 80%를 AI가 처리한다는데, 통찰력을 가진 질문 능력이 필요한 시대, 시화전 감상이나 고전, 명상, 산책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화전을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전세중회장님과 집행진께 응원해주신 송파구청, 송파문화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봄의 꽃길인 석촌호수 시화전,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순간, 옅은 미소를 머금은 행복한 순간이었으면 합니다.

벚꽃축제와 시화전에 붙여



본회 고문,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최 균 희

먼저 벚꽃축제를 주최하는 송파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화전에 참여해주신 우리 송파문협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해마다 석촌호수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풍경과 함께 수많은 산책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문인들의 시화가 함께 전시되어 큰 호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파 시민은 물론이고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어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일치하는 멋진 축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송파문인협회 창립멤버로 시작하여 30여년 동안 동행한 사람으로써의 감회는 해마다 다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석촌호수가 돌계단에 앉아 매주 한 번씩 동요부르기 캠페인을 벌이며 느낀 소전은 우리 문협 시화전이 벚꽃축제 기간만 열리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석촌호수, 그 길고 수려한 산책 코스에 시화뿐만 아니라 미술, 서예 등 각종 예술작품을 산책인들이 수시로 감상할 수 있도록 연중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이미 오래전에 본인이 송파문인협회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제안했던 것이지만 이 기회에 또다시 거론해 봅니다. 이제 한국예총 송파지부도 생긴 시점에서 각 예술단체가 앞장서서 석촌호수 돌레길을 적절히 배당받아 사계절 비나 눈이 맞지 않는 진열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언행일치가 되는 리더들이 우리 송파의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주길 기대하면서 벚꽃축제와 시화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2026 제3호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

호수에 벚꽃 웃음

명석 가철노

드높은 푸른하늘 밑 햇살
한 낮의 흐름 조화롭구나.
나무에 꽃방긋 웃고 있는
계절의 꽃망울 다시 보게하네.

온세상 방긋웃는 모습과 색상
모든 가지에 즐거움이 넘쳐
춤던 시절 어디로 꽃망울 되니
운치있는 사색의 빛갈 가득히

흥미롭고 화려한 열정이 흐듯
밝은 햇살 비추니 아름 다워라.
나무에 포근함이 전율을 휘감아
그리움되어 온세상을 태우고 있네.

2026. 봄날.
석촌호수가에서



작가 : 가 철 노 詩人

충남 태안 출생, 삼천초교 명예교사
생활문학 시부문 신인상, 문학생활 문학상,
2025 문학생활 삼행시 특별상(이천시 국회의원 상)
한국생활 부회장, 송파문학회 이사
〈시집〉 『석촌호수1』, 『석촌호수2』
〈공저〉 『문학생활 시화집』, 『문학생활 삼행시』

벚꽃 세상

명석 가철노

모진 풍파 엄동설한 지나
한 해를 건디면서 봄의 계절
꽃망을 보이고파

아름다운 자태 피어난 벚꽃 세상
그 모습이 너무나 눈 속 깊이
햇살 아래 화려한 꽃 자랑하며

눈부시게 뽐내는 그 모습
화려하고 아름다워라

벚꽃의 향연 감동 최고
오래도록 가슴 깊이
남기고싶다



작가 : 가 철 노 詩人

충남 태안 출생, 삼천초교 명예교사
생활문학 시부문 신인상, 문학생활 문학상,
2025 문학생활 삼행시 특별상(이천시 국회의원 상)
한국생활 부회장, 송파문학회 이사
<시집> 『석촌호수1』, 『석촌호수2』
<공저> 『문학생활 시화집』, 『문학생활 삼행시』

꽃 피는 이명

김도이

수로를 타고 오른 꽃들이 색도 없이 종이염을 앓는 봄

애인이 귓속으로 들어왔다

불면으로 말을 걸어 잠근

밤 잎들은 수군거리며 내 몸에다 우기를 흘려 놓았다

왼쪽 방향으로 새가 울고 빗물이 흘러

꽃들은 귀를 기울이며 숨소리를 죽였으나

무채색 소음은 불면과 자주 어울렸다

멀리로 색을 앓은 얼굴이 귀를 벗어 두고 싶어

꽃 피는 소리들이 자리 잡은 음역은 방향도 없이 흐르고

귓속말에 걸어 둔 네가 파장으로 흔들릴 때

너는 어떤 데시벨로 화를 돌워 냈을까



작가 : 김도이 詩人

2014 <열린시학> 등단. 2016 제3회 흥완기문학상 수상
시집: 『얼룩의 시차』 『장미를 수선해주세요』



작가 : 김 사 라 詩人

신학 석사 박사, 예술학, 철학, 교육학, 문학, 상담학(명박)
 이스턴프라임 대학교(신학) 한국총장(역임)
 예술시대작가회(회장역임, 고문)
 청사회(회장역임)
 송파문인협회(이사 및 사무국장)
 동행 성시문학 및 낭송회(회장)
 행복문인협회 성남시 회장
 현재: 시인, 서양화가, 작사작곡가

“아들에게”

김사라

진주 남강 즐기
산기슭 한 자락에
너를 맡겨두고
나는 돌아서 간다
다시 한번 더 너를 돌아볼
자유가 내겐 없었다

나 혼자
이제 돌아가야 한다
네가 이 나라의 아들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
네가 갈 길이 거기 있으니
이 땅을 지키는 일
네 온 몸으로 익히리니
순간의 고통과 기쁨
온전히 네 것이 되리니
진주 남강 맑은 물길에도
아늑한 산기슭 한 자락에도
내 사랑
가만히 묻어두고 간다



작가 : 김 사 라 詩人

신학 석사 박사, 예술학, 철학, 교육학, 문학, 상담학(명박)
이스토프라임 대학교(신학) 한국총장(역임)
예술시대작가회(회장역임, 고문)
청사회(회장역임)
송파문인협회(이사 및 사무국장)
동행 성시문화 및 낭송회(회장)
행복문인협회 성남시 회장
현재: 시인, 서양화가, 작사작곡가



내 안의 어머니

김예숙

아궁이 불빛 드는
부엌문 틈 사이로
보드득보드득
달그락달그락 소리

저녁상 차리시던
그 뒷모습이
간밤의 꿈이런가

볶은 듯
아니 볶 듯도 한데
서러워라

가슴을 파고드는
그리움에

오늘도 하얗게
날을 밝혔습니다.



작가 : 김 예 숙 詩人

2022. 02. 14. 월간 신문에 등단
제주도 시인학교 백일장 차상
한국신문회문학회 수상

수 선 화

김유경

외로움의 무게 벗어버리고
차디찬 얼음 두께 헤집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너

가녀린 몸짓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의지로
세상에 고개 든 너

어디서 그 용기 나왔을까

가련하고 애달픈 네 모습
네 속엔 이미
봄이 자라고 있었구나

누가 보듬어 주지 않아도
어둠을 냉혹을 이겨낸 너
나도 잠시 겨울을 잊어본다

너의 고결하고 단정한 모습에
고운빛 가져다준 너의 모습에
작지만 단단한 너의 모습에

나는
희망의 봄을 맞이한다



작가 : 김 유 경 詩人

글뜨락 동인회 등단
송파문인협회 회원

송파예찬

승능 김종화

계절이 수만 번 그 허물 벗어도
청청한 기개 잃지 않는 노송의 숲
그 푸른 절개 위에 세워진 이름, 송파

백제의 심장이 천 년의 맥박으로 뛰고
굽이치는 송파나루, 도미부인 붉은 정절
윤슬마다 부서져 흐르는 불멸의 전설이여라

오륜의 함성이 세계 지도 고쳐 그린 땅
은빛 타워 하늘 이마 맞대고
대륙의 기상 품은 늠름한 지표로 섰으니


고도의 향기와 첨단의 빛 교차하는 길목
미래라는 비단을 짜 올리는 희망의 베틀 소리
주민의 숨결이 법이 되는 고결한 품격의 성소

모두의 꿈이 정박하고 싶은 단 하나의 항구
사람 냄새 향유처럼 번지는 지상 낙원
아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를 이름, 송파



작가 : 승능 김종화 詩人

시·수필·소설·평론·시나리오 등단
『3사문학』 발행인, 『전쟁문학』 주간
한국문인협회 이사, 군포수필창작아카데미 지도교수
수필집 『아버지 그 이름의 무게』 외 총 18권
수상 박종화 문학상, 조연현문학상 외 9회



봄 날

김진돈



허리를 구부린 할머니를 부축하고 들어선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침 한 대 맞으면 나올 것 같아.”

진찰실 침대에 누우시며 “원장 선생, 결혼 했어? ……, 총각 같아서, …… ”

자고나니 허리에 탈이 났다는 할머니, 묻지도 않은 말이 목련꽃을 닮았다 “한창팬 침 한 대면 그만이었어.”

내 손을 꼭 쥐고서는 “젊어서 좋겠어.”

할머니를 따라 천천히 출입문을 나선다. 봄별도 많이 기울었다.



작가 : 김진돈 詩人

송파구한의사회장, 운제당환의원장,
2011년 <열린시학>, <시와세계>에 시등단
시집: 「그 섬을 만나다」, 「아홉개의 계단」 외 다수

바람꽃은 신음입니다

김현신

바람꽃은 언제 익어갔던가,
나선을 그리며 날아간 하얀 손은
천국이듯 평화롭고, 어둠처럼 차갑고
입술과 꽃잎을 섞으며
비처럼 공간을 찢으며
젖은 몸으로 머물다
바람꽃으로 피어납니다

그가 머무는 섬은 어떤 꽃일까,

신화로 남은 하얀 손은,
모래 보다 더 모래인 신음은,
한 조각구름, 비틀거리는 비명,
신의 악몽일까, 선명한 낭만일까,
눈물의 심장을 찢으며
젖은 몸으로 머물다 돌아갑니다
바람꽃 지는 돌담길은 신음입니다.



작가 : 김 현 신 詩人

문학평론가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 고문

「송파문화원장」

시집 『빈 페이지에 얼굴을 묻고』 등 다수

「이상 시문학상」 「영랑문학상 시부문 대상」 등 수상

라일락 꽃잎으로 내리는 비

김현신

창백한 라일락이 있었다

하얀 종이 같은, 한 가닥 노란 우울
밤하늘을 실은 공항은
공항의 음악으로 흘렀고,
암흑색으로 흔들리는 달빛이 있었다
달빛은 입술을 지우고
겨울로 왔다 겨울로 떠나는
라일락 잎으로
비의 바람이 불었다
라일락 꽃잎으로 또 비가 내린다
손들은 모두 노랗고
혼란스러운 방식의 순례다
깊은 밤이다
창백한 라일락, 노란 침대

새 한 마리 날아올 것이다



작가 : 김 현 신 詩人

문학평론가
(사)「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 고문
「송파문화원장」
시집 「빈 페이지에 얼굴을 묻고」 등 다수
「이상 시문학상」 「영랑문학상 시부문 대상」 등 수상

이른 봄

남춘길

새벽바람은
갓 베인 시간을
물고와
회색빛이침이
물오른 나무 가지위에 걸리고

햇살은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창문을 두드린다

어느새
겨울을 밀어내고
다가온
한줄 봄별이
눈부시다



작가 : 남 춘 길 詩人

한국문인협회, 한국 수필가 협회,
송파 문인 협회, 푸른 초장 문학회 회원
현: 한국크리스천 문학회 회장
수필집: 『어머니 그림자』 『숨겨진 행복』
시집: 『그리움 너머에는』 『노을빛으로 기우는 그림자』



감나무에 주렁주렁
주황색 등불 켜지면
가을이다

감나무 꼭대기에
까치밥 몇개 남겨두면
겨울의 시작

생로병사 그길도 돌고 돌아
태어난 이는 누구나 언젠가는
꼭 떠나는 인생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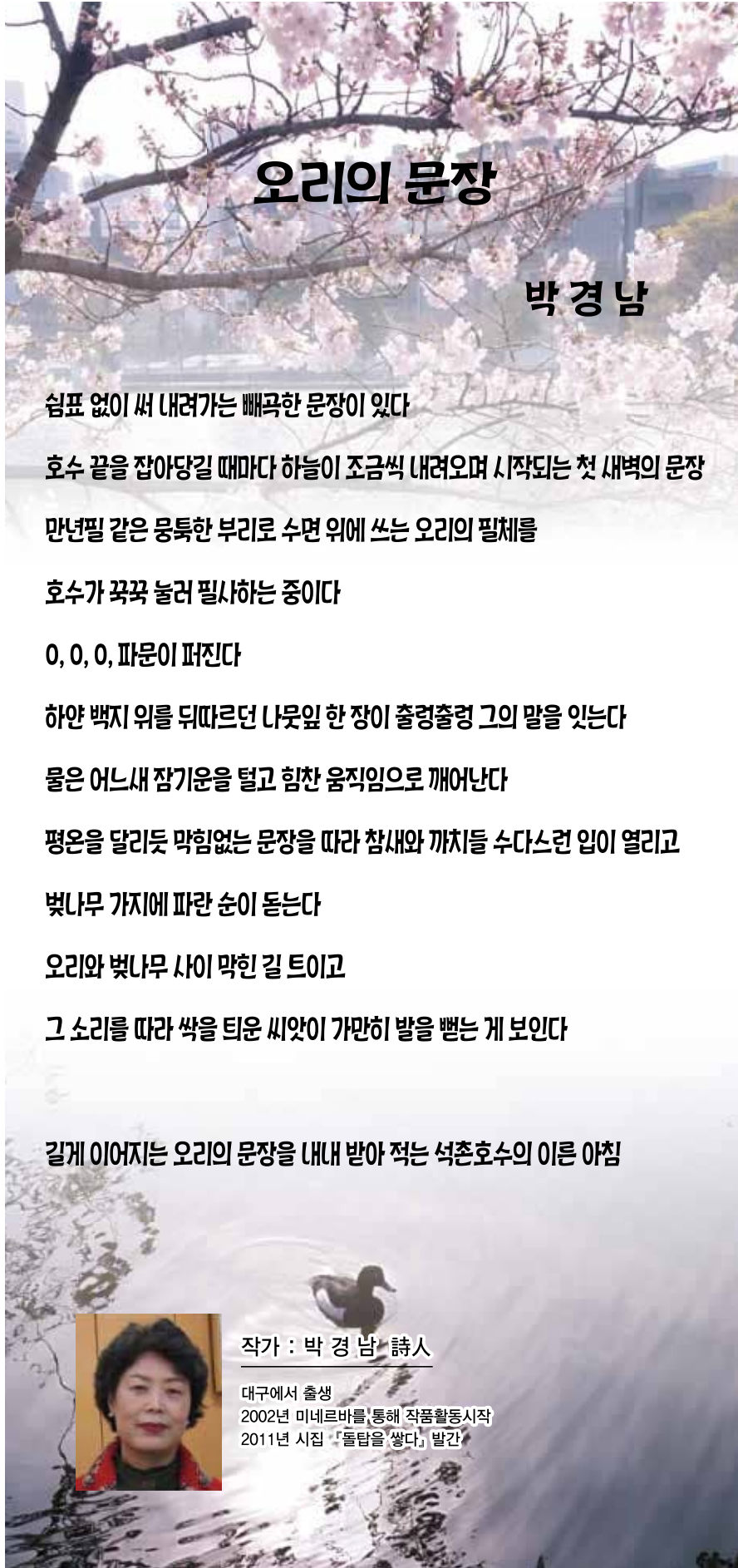
꽃길이다가 불길이다가
단풍 들고 눈길로 변해 녹고 나면
또 안 해는 그렇게 흐르고 마는
그 세월 살고 있지

의망 꿈 꾸는 이야기 나누며
감사하며 살고 있지
서로의 등 토닥이며 힘줄어 주는
그런 좋은날 살고 있지



작가 : 민 숙 영 詩人

1990년 월간문학신인상
한국 문인협회 송파문인협회
문학의집 서울 회원
시선집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시의 힘』



오리의 문장

박경남

심포 없이 써 내려가는 빼곡한 문장이 있다
 호수 끝을 잡아당길 때마다 하늘이 조금씩 내려오며 시작되는 첫 새벽의 문장
 만년필 같은 뭉툭한 부리로 수면 위에 쓰는 오리의 필체를
 호수가 콧콧 눌러 필사하는 중이다
 0, 0, 0, 파문이 퍼진다
 하얀 백지 위를 뒤따르던 나뭇잎 한 장이 출렁출렁 그의 말을 잇는다
 물은 어느새 잠기운을 털고 힘찬 움직임으로 깨어난다
 평온을 달리듯 막힘없는 문장을 따라 참새와 까치들 수다스런 입이 열리고
 벚나무 가지에 파란 눈이 돌는다
 오리와 벚나무 사이 막힌 길 트이고
 그 소리를 따라 싹을 틔운 씨앗이 가만히 발을 뺀 게 보인다
 길게 이어지는 오리의 문장을 내내 받아 적는 석촌호수의 이른 아침



작가 : 박 경 남 詩人

대구에서 출생
 2002년 미네르바를 통해 작품활동시작
 2011년 시집 「돌탑을 쌓다」 발간

나를 사랑하는 연습

해성 스님

하루가 열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깨운다

누구도 대신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슬픔을 희망으로
불안을 긍정으로 바꾼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다

내 안의 신념을 믿고
내가 가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자성의 아름다움이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다

백번 천번 오늘도
내 안의 밝은 빛을 따라
끝없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한다



작가 : 해성 방정숙 詩人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이사
국립국어원 불교수화 편집위원
한국문인협회, 송파문인협회, 불교아동문학회원

벚꽃

해성 스님

긴 겨울

모진 바람을 견디고 나서야
햇살 아래 숨죽였던 꽃망울이
다소곳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푹니다

가지마다

고운 눈동자처럼 피어난 꽃들
봄바람에 손을 흔들며
몸짓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찰나의 기쁨은

이내 꽃비 되어 내려앉고
사람들 바삐 바삐 스쳐 가도
슬픔 하나 없이 웃는 모습

떨어지는 순간조차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마치 삶의 향기 하나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들이
어쩌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이유를
벚꽃은 알고 있나 봅니다



작가 : 해성 방정숙 詩人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이사
국립국어원 불교수화 편집위원
한국문인협회, 송파문인협회, 불교아동문학회원

바람

배종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바람을 담으려 했고
바람을 잡으려 했던
교만의 시절들

자유로운 바람을
가두려고까지 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시절들

이제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야겠다



작가 : 배종선 詩人

한국참여문학 작품상, 계간문에 상상탐구작가상,
아동문학세상 신인문학상 외 시집 「어서 오세요」, 「사랑의 노래」,
동시집 「제발 말 좀 해라」

성당의 산책로

백재현

소년시절 성당 교리모임
까만치마에 하얀줄하나
마주앉아가슴 두근거리던
소년 소녀 시절 그리움 추억

멀리서 들려오던 미사의 종소리
한발 두발 산책하며 찬미 예수님

성가대 합창 소리 울려 퍼지고
하모니에 가슴 울리니 가까워진 성령
일흔 넘어 순명 따라 구역장 봉사

성부와 성령의 은총 가득하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와 믿음
뛰지 말고 건강하게 산책하듯
천천히 하느님 곁으로



작가 : 백재현 詩人

2016년 서울시 지하철 시 공모전 당선
2016년 문학에스프리 신인상 등단
송파문인협회 이사





누구시더라

백재현

일주일째 문자가없으면
헤어지자는 이별 소식인가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면
헤어짐에 가슴이 시리네

봄 여름 가을이가고
낙엽은 떨어지는데
님은 어디에서 무얼하는가

눈보라에도 굳게 지킨 가슴
봄바람에 매화 목련이 올라오던날
반가운 님 소식에 내가 하던 말은
누구시더라.....



작가 : 백재현 詩人

2016년 서울시 지하철 시 공모전 당선
2016년 문학에스프리 신인상 등단
송파문인협회 이사

세상을 살면서

서주문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을때
우리는 살아 숨 쉬며
이사람 저사람과 같이 산다

이 세상 모든 자연을 보라
바람이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떠나고 보내며 산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집착 말고 미련을 두지 마라
내가 볼수 있고 아는 것은
먼 훗날에는 아주 미미하다
모든 것을 비워두고 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작가 : 서주문 詩人

2022년 시가 흐르는 월간 문학상, 2023년 시가 흐르는 서울 문학대상
2024년 한글문학 작가회문학대상, 2025년 키르그즈스탄 문화사절
시꽃예술회 고문, 서미예술협회 고문,
송파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그리움

서주문

보고 싶은 얼굴
눈물 속에 보이네

보고 싶은 마음
달빛 속에 비추네

눈을 감고 바라보니
내 머릿속에 찾아와

아름다운 추억
한장 한장 넘기니

보고 싶은 그리운 당신
가슴 속에 숨기고 살리라



작가 : 서주문 詩人

2022년시가흐르는 월간 문학상, 2023년 시가흐르는서울 문학대상
2024년한글문학 작가회문학대상, 2025년키르기스스탄 문화사절
시꽃예술회 고문, 서미예술협회 고문,
송파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삶의 울림

손 형

비어있는 공간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삶
얼룩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시간마저 비어져 가는 삶

산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세상이 숨죽이는 소리
목어의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늘에
무릎을 꿇고 귀를 열면
삶의 흐름을 되돌리는 소리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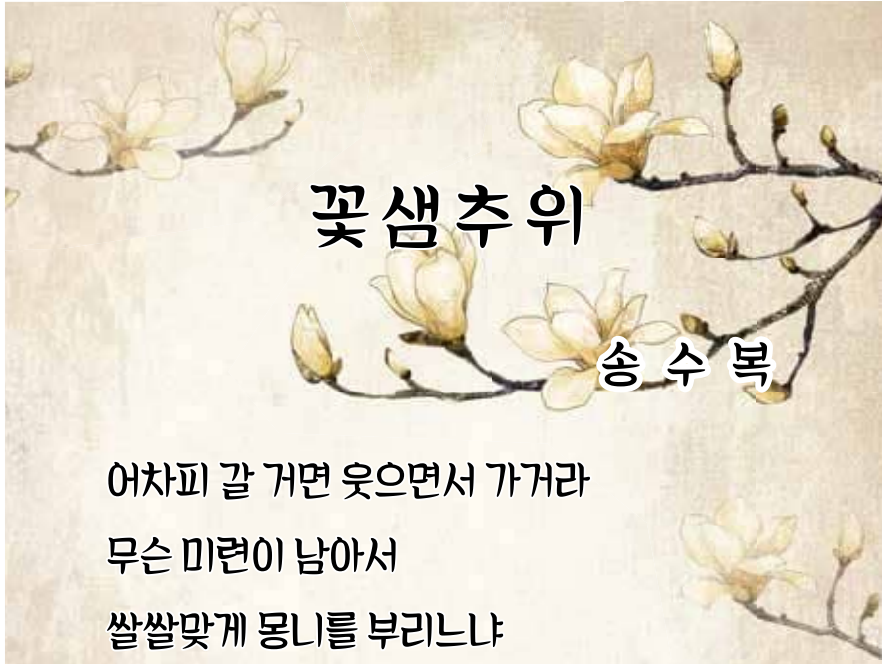
삶이
희미를 곁추세우자
산이 하늘이
힘내라고 길을 닦아준다

삶의 울림이
비어가는 시간의 싹을 키운다



작가 : 손 형 詩人

송파문인협회 소셜분과 위원장
심상문학회 이사
국제pen한국본부회원



꽃샘추위

송수복

어차피 갈 거면 웃으면서 가거라
무슨 미련이 남아서
쌀쌀맞게 몽니를 부리느냐
모처럼 몸치장하고 봄길 나서는데
모질게 눈비까지 합세한다
조팝나무속 꿀벌 웅성거리고
만삭인 목련 몸 푼다고 소란인데
어찌자고 꽃샘은 해찰만 부리는지
아름드리나무 그늘 아래서
차갑게 흔들리는 약속은
자리다툼에 돌아서지만
이미 향기에 취해버렸고
끝내 벚꽃 만개한 사월만
온 세상을 활짝 밝히고 있다



작가 : 송 수 복 詩人

시와수상문학(2015년 봄호) 시, 등단
시와수상문학 회장(전) 꽃뜰시당송원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계간문예, 송파문협회원
서울시 청소년지도자 문화예술 부문 대상,
시와수상문학 작가회 문학상, 공로상

마 중 물

송 수 복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까
걸을 수 없는 앙금으로 가리았을까
조심스러운 오늘

따뜻한 한마디
살며시 번지는 미소 하나로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잊히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물 한 바가지로
땅속 깊은 물줄기를 끌어올려
평평 쏟아지는 샘물처럼
세상 누구에게나 소중한
마중물이고 싶다



작가 : 송수복 詩人

시와수상문학(2015년 불호) 시, 등단
시와수상문학 회장(전) 꽃뜰시낭송원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계간문예, 송파문협회원
서울시 청소년지도자 문화예술 부문 대상,
시와수상문학 작가회 문학상, 공로상



내 사랑 별이 되다

신경삼

구름 따라 흘러간 날개짓
백조의 날개인 듯
백의천사인 듯
하얗게 이팝꽃 흩날리던 날
우리는 사랑을 알았지
별처럼 빛나던 그녀의 눈빛
사랑은 바다를 건너
카오스의 혼돈을 넘어
헤어짐은 없다고 다짐했었지
함박눈이 내리던 날
별처럼 빛나던 그녀가
시나브로 희미해져 가고
그녀의 빛은 손이 닿지 않는
허공으로
회색빛 되어 흘러갔다
구름 따라 흘러간 그녀
하늘의 별이 된 그녀
백조의 날개 퍼덕이며
오늘밤도
내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미소가 반짝인다



작가 : 신 경 삼 詩人

[시와수상문학]에서 등단
글뜨락 동인회 회원
송파문인협회 회원

봄비

신종식

봄에 내리는 비는
어머니 같아요

산에서
들에서
막 잠 깬 아이들

얼굴 씻기고
밥 먹이고
예쁜 옷 입혀
세상에 내보내며

잘 자라야 한다
세상에 이로운 것 되어야 한다
토닥이는

당신의 수고로움이
자식들 삶의 밑거름이길 바라는

봄에 내리는 비는
하느님이 너무 바빠 보내셨다는
어머니 같아요



작가 : 신종식 詩人

송파문인협회 회원
노래 미술, 팬플룻연주 봉사

저 벚나무의 꽃잎이 되어

양순복

꽃샘바람 드러내지 않고
뺨 스쳐지나가는 조금은 남겨두는 것이
당신의 미소 사랑일진대

귓등에 올리는 내 한 생애 넘어
꽃잎의 속삭임에 물비늘 타고 오다
가슴 아린 사라져 가는
나의 사랑이여

 내 사랑
미풍에 하늘거리는 나의 그리움이여.

저 꽃잎
물 위에 떠다니고

햇살 눈부신 아침이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그리움만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나의 사랑아



작가 : 양 순 복 詩人

K - 문학인 포럼 감사
월간 신문에 사무총장
송파문인협회 사무·재무차장
제1시집 『움집 위에 핀 이슬꽃』
제2시집 『B형 도시』

세랑지의 별

양순복

별을 주우러 당신에게 가는 길
연둣빛 잎 사이로
벚꽃잎이 수줍게 웃는다

물안개 고운 호수 위 그대 숨결이 내려왔고
스치는 바람 한 줄기 파문을 그리면

산 그림자 품은 물빛은 헛된 꿈을 잊게 한다

초록 물결 속에 호수는 하늘빛을 안고
연꽃처럼 천상으로 오르네

포근히 감싸는 바람이 모든 시름 씻어 낸다 하여도

내 마음 깊은 곳 그리움만은 더 짙어진다.



작가 : 양 순 복 詩人

K - 문학인 포럼 감사
월간 신문에 사무총장
송파문인협회 사무·재무차장
제1시집 『음침 위에 핀 이슬꽃』
제2시집 『명형 토씨』

남미로 가는 길

海華 이명림

동쪽 하늘을 향한
긴 비행 끝에서
좁은 통로를 가끔 걷는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안데스를 만나러간다

과달루페 성소와
잉카의 마추픽추 숨결이 궁금하고
헤밍웨이의 쿠바 아바나를 보기 위해
이코노미석 에서도
묵묵히 앉아 있다

칸쿤의 카리브 해변
하얀 백사장을
맨발로 걷기 위해
그 먼 여정을 조용히 견딘다



작가 : 이명림 詩人

시인, 시낭송가, 서양화가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수료
제32회 순수문학상 작가대상 수상
(사)한국시인협회/국제PEN한국본부회원, 송파문인협회이사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한국시민뉴스기자(국장), Lee21 대표
저서 『친구가 되는 산』 『남미로 가는 길』 『사랑가』
『금강산을 두 번 가다』 / 공저(동화) 『우리 땅 지키기 대작전』

나무는 죽어서 말한다

이은수

금강송한 그루
미술관에 실려와 누워 있다

톱날에 잘리면서도
안간힘으로 체취를 공간에 풀어놓던
시간의 부스러기들 너저분하다

무딘 생은 연기에 가망게 타 버리고
숯으로 옷입은 나무는 절규하고 있었어

그 몸에 새겨진 반짝이는 균열들은
무릎 꿇은 인간의 고백처럼 허리를 꺾어
그의 목소리 처절했어

북태평양의 바람이 스쳐간 이파리들,
잃어버린 숲길 그리고 그리운 이름, 그곳 이야기

금 그어진 틈으로 쏟아지는 말들의 범람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
관절을 꺾고 주저앉아

지나간 생의 온도를 털어내듯
발화(發話)하는 순간이기도 하지

나무는 죽어서 말을 건네고 있다



작가 : 이은수 詩人

2011년 아동문예로 동시등단
2021년 미네르바 등단
2022년 「링크를 걸다」시집 출간

봄이 오는 길목

이한재

기다림 끝에 찾아온 계절
꽃은 피었지만
바람 끝에 겨울이 매달렸다

봄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겨울의 숨결이 남아 있다

나뭇가지 틈새를 헤집는 햇살
봄을 재촉하는 발걸음

어수선한 세상
계절의 경계에 숨겨진 약속
물음표 같은 시간 속에

긴 겨울의 장막을 걷고
녹아내린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리



작가 : 이한재 詩人

2007년 <문예사조> 시 등단.
국회·전국문화원 공동개최 <2005년 전국창작시 공모> 은상수상.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회원
시집: 『징검다리』 등 3집, 수필집: 『수평선과 갈매기』 등 2집,
영어시집(미국발간): 『Korea My Homeland』 등 4집, 영어수필집(미국발간) 『Four Seasons』,
미국 문예지(Catamaran Literary Reader) 등 13곳에 16편의 영어 시 및 영어수필 게재.

낮은 곳의 위로

이 한재

발길 드문 성내천 둔덕에
스스로 피어난 제비꽃 한 송이

세상을 향한 그리움인가
숨겨진 위로의 마음인가

자디잔 몸을 낮게 드리우고
땅의 가장 깊은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의 발치에 머물고자
가장 작은 빛으로 피어났으니

흙의 숨결에 조용히 깨어나
아침 이슬 머금고 햇살을 길어 올려
오랜 기다림으로 제 몸을 채운다

화려치 않아 더 깊은 울림
시린 계절 견뎌낸 묵묵함

매연에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메마른 눈동자에 선표 하나 놓아주니

아, 낮은 곳의 위로.



작가 : 이 한재 詩人

2007년 <문예사조> 시 등단,
국회·전국문화원 공동개최 <2005년 전국창작시 공모> 은상수상,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회원
시집: 「장검다리」 등 3집, 수필집: 「수령선과 갈매기」 등 2집,
영어시집(미국발간): 「Korea My Homeland」 등 4집, 영어수필집(미국발간) 「Four Seasons」,
미국 문예지 <Catamaran Literary Reader> 등 13곳에 16편의 영어 시 및 영어수필 게재.



오메, 어찌끄나

이효성

입 닫고 지갑 활짝 열라 하니
맞고만 맞아
얼씨구나 지화자
내 나이가 그 나이네

쫓대와 끈대
옹기와 주책의 경계가 아슬아슬하게 얹아지니
그래그래 그 말이 맞아
그 나이가 그 나이네

가발 맞추고 목주름 펴지
치매에 좋다는 아이돌 가사 줄줄 외지
떼창 따라 부르면 젊은이로 쳐 주지
이 나이가 그 나이네

쭈글쭈글한 얼굴이 어둠의 동굴 같다는
미운털 박히는 소리 뒷전에서 들리기도 하는
그 나이가 이 나이네

오메, 어찌끄나
손주 이름 가물거리고 말귀 멀어도
익어간다는 말에 혹하는
딱 그 나이네 그라



작가 : 이 효 성 詩人

시와문화 회원
송파문협 회원



봄과 봄날 사이

임영화

봄의 의중을 아는
봄날
앉은 자리마다 새것들 돌아난다
봄날의 의중을 아는 바람은
가지를 흔들어 느티나무를 깨우고
햇별은 바위 밑
유혈목이를 불러낸다
피라미 떼지어 물살 일굴 때
박새 한 마리
포르릉 솟구쳐
허공 속에 풍당 빠진다
봄의 의중을 아는 봄날들이
수채화를 그린다
들과 산이 화폭에 가득 차는데
무차별 꽃 폭격으로
마을이 초토화되던 날
마실에서 돌아온 어머니
부엌으로 달려가며
어디서 자꾸 타는 냄새가 난다 하신다



작가 : 임영화 詩人

2018년 계간 <시와문화>로 등단
시와문화 작가회, 송파문인협회 회원
시집 「그림자 나라에는 새들이 산다」가 있다

울진 아리랑

- 울진 12경

전세중 작시
박범훈 작곡

1

수만년 세월 속에 왕피천 굽이 흘러
맑은 물 푸른 숲 내 고향 울진 살기 좋은 울진일세
성류굴 문화 동굴 종유석 울림소리 아리랑, 아리랑
불영사 달이 뜨면 연못에 부처 있고
불영계곡 멋진 정치 솔향기 가득하여라
아리랑, 아리랑 내 사랑 울진
아리랑, 아리랑 울진 아리랑

2

소광리 금강송은 백두대간 기둥이요
금강송 송이버섯 빛깔도 해맑구나 내 고향 울진일세
망양정 올라보니 돌고래 노랫소리 아리랑, 아리랑
좌도는 사랑 실고 끝없이 출렁이네 월송정물 올라보니
산하의 중심지라 가노가노 언제가노 바지게꾼 십이령길
아리랑, 아리랑 내 사랑 울진
아리랑, 아리랑 울진 아리랑

3

봄이 오면 산골마다 진달래 피어나네,
죽변항 후포항은 울진대게 본산이요
덕구 백암 온천수는 만병통치 백약이라
살기 좋은 내 고향
아리랑, 아리랑 내 사랑 울진
아리랑, 아리랑 울진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울진 아리랑



작가 : 전세중 詩人, 수필가, 문학평론가

송파문인협회 회장,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감사
월간문학 시조 등단(2002), 농민신문 신춘문에 시조 당선(2004)
서울창의상(시정연구논문, 2009), 2019 KBS창작동요대회 노랫말 우수상
저서, 시·시조·수필·여행기·논문·동요·가곡 악보집 등 30권.

불타는 인형

- 119구조 현장에서

전세중 작시

김경양 작곡

얼마를 내달려야 그의 곁에 이를 건가
더디 더디게만 다가서는 목 타는 안타까움
꽉 막힌 사거리 서면 초침마저 휘청거린다

머리 풀어 헤친 버섯구름 회색 도시 삼키고
허물어진 흙더미 속 새 나오는 신음소리
외마디 단말마 되어 가물가물 들려온다

어두운 벽 후벼 후벼 미로 끝 저편으로
손과 손 맞잡으려 내젓는 기구의 시간
점액질 끈끈한 사랑, 껴안아라 깊은 상처를

단발머리 풀빛 소녀 인형 하나 끌어안고
허끝 날름대는 불길, 그 불길에 휘감긴 채
가파른 구원의 팔을 허우허우 젖는다

매캐한 연기 틈에 더운 기운 번져온다
이윽고 꿈틀 하는 몸짓 햇살 한 입 베어 물고
“살았다” 터지는 함성, 가로수도 손뼉 친다

※제5회 공무원문예대전 시조부문 최우수상 수상작(2005)



작가 : 전 세 중 詩人, 수필가, 문학평론가

송파문인협회 회장, (사)한국통일문인협회 부이사장
월간문학 시조 등단(2002),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2004)
서울창의상(시정연구논문, 2009), 2019 KBS창작동요대회 노랫말 우수상
저서, 시·시조·수필·논문·동요·가곡 악보집 등 30권.

연두빛 날

전 정

햇살이
나뭇가지에 닿자

연두빛이
조용히 번집니다

바람은
꽃잎을 데려와
길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

하얀 꽃
분홍 꽃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습니다

꽃잎 하나
내 마음에 내려와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해도 된다고

말해 줍니다



작가 : 전 정 詩人

시와세계 등단
저서 : 물방울마네킹 출간

수종사에서

전한태

운길산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먼 물소리가 우리를 부른다.

두물머리 물결은
서로에게 몸을 기대어 흐르고,
그 위로 하얀 구름이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그대와 나
오래된 돌계단을 오른다.
한 걸음마다,
잊고 지낸 지나간 추억의
조각들이 살며시 떠 오른다.

차 한 잔의 김처럼
시간은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그 안에 나도 잠시,
한 줄기 안개로 머문다.

종소리 멀리서 번지면
모든 소란이 물처럼 잠든다.

이곳에서는
그리움조차 고요하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쉽구나.



작가 : 전한태 詩人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한국작가시 등단,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경기도 문인협회 자문위원, 문협 문예대학 수료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 수필집) 외 1권

2025년의 마지막 날

전 한 태

숨자는 멈추고
숨부터 하얗게 나온다
영하 십오도 말은 열고
생각은 천천히 뒤쳐진다
인제 자작나무 숲
눈 쌓인 숲은 소리를 덮고
나무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서 있는 일만으로도
한 해를 넘긴다.
눈길 삼 점이 킬로미터
눈돌아갈 수 없는 방향
발자국이
뒤에서부터 사라진다.
올해 하지 못한 말들
올해 잡지 못한 순간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두 같은 길이 된다
숲을 나서며
나는 알게 된다.
지나온 것은 묻히고
걸어나온 것만
남는다는 것을...
눈 쌓인 숲 뒤로
새해는
아직 말이 없다



작가 : 전 한 태 詩人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한국작가 시 등단,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경기도 문인협회 자문위원, 문협 문예대학 수료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 수필집)의 1권

석촌호수는 흐르고 싶다

정문수

천만년의 한강의 아리수
 허리가 잘리고 꼬리가 끊어져
 석촌호수가 태어났다
 사람들이 토막 내어 송곳빌딩 올리고
 동호와 서호로 또 잘리어 났다

태고 때부터 송파나루터에
 새우젓 팔았던 좌시는 어디가고
 뽕나무 밭 잠실벌에
 *아시아인이 모이고 *세계인이 모여서
 한바탕 큰 축제를 벌였다

석촌호수는 말이 없지만
 옛날처럼 흐르고 싶다
 옛날처럼 한강 따라 뱃노래 부르며
 황해로 넓은 태평양 대양으로
 한없이 고요히 흐르고 싶단다

(주) * 86 아시안 게임
 * 88 서울 올림픽



작가 : 정문수 詩人

송파구 문인협회 부회장, 한국시 大賞 수상
 (사) 한국문인협회 회장 표창
 대한민국 근정훈장 [제46642호] 수상
 [수선화의 눈물, 들국화 人生] 등 7집 발표

고맙습니다

정 옥 화

지인의 전시회 초대를 받고
인사동 갤러리에 갔다

내가 아는 얼굴
전시관 한구석에서 웃고 있었다

얼마 전
하루 종일 인물화 모델이 된 옆지기
전시장에서 또 보게 되는 얼굴
꽃다발 한아름 앞에 내려 놓았다

걸어온 길
깊게 파인 이마주름은 훈장처럼
세월이 건네 준
삶의 무늬

옆지기 인물화 앞에 서서
웃기 여미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작가 : 정 옥 화 詩人

전) 중등교사
시집) 별이 내려와앉은 자리
 님이오시는날에

물 봉선화

정옥화

담벼락에 기대어
지나가는 행인들 쳐다보는 물 봉선화
길 가던 나를
멍하니
그 자리에 멈추게 한다
건드리면 상처 받을 것 같은
보랏빛 꽃잎
하늘 길 바라보며 꿈 꾸는 듯하다
쳐다 보기만 하라고
소소 바람이 전한다

내 안에
잠 재울 수 없는 보고픈 얼굴
너만 보면 떠올라
그리움이 물 봉선 꽃대만큼 길다

2025년 9월



작가 : 정 옥 화 詩人

전) 중등교사
시집) 별이 내려와앉은 자리
 님이오시는날에



한국바람(한류)

도빈 조기엽

기원전 3500여년전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발원한 인류문명바람이
에게해를 거쳐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을 지나
한국에 닿았다

한국에 머물러
숙성된 문화바람
한류바람이
세계를 향해 불고있다

깨닫고 알아차림의
성숙한 한국문화가
자신은 물론이고
세계향해 불고
세계를 리드하고
변혁시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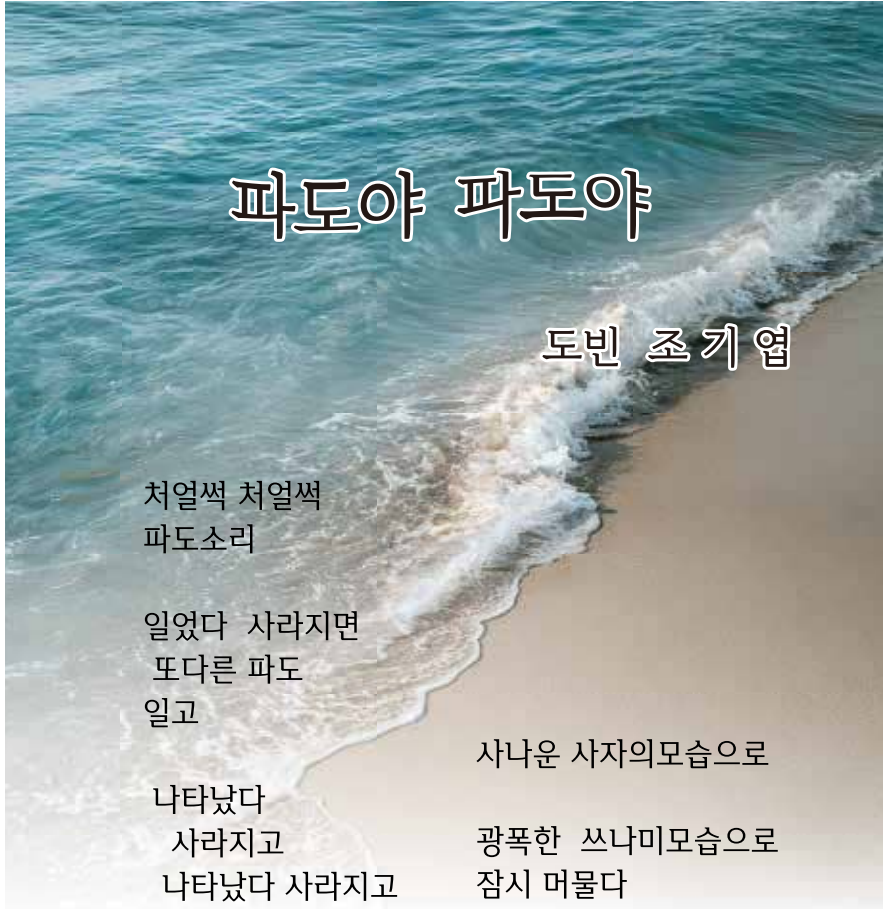
2026년 1월 1일이
그 시발점이다

한류



작가 : 조 기 엽 詩人

고려대 졸, Rotc 장교전역, 대성자울형고등학교 근무
녹조근정훈장수상, 송파문인협회부회장, 한국문인협회회원



파도야 파도야

도빈 조기엽

처얼씩 처얼씩
파도소리

일었다 사라지면
또다른 파도
일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무진한
파도 신화

처얼씩 처얼씩

파도의 생은
짧은 순간

때론 잔잔한
깃털의 모습으로

사나운 사자의모습으로

광폭한 쓰나미모습으로
잠시 머물다
심연의 바다로
되돌아가네

처얼씩 처얼씩

파도있음에 바다있고
바다있음에 파도있어

처얼씩 처얼씩

바다가 파도이고
파도가 바다인것을

파도야 파도야



작가 : 조 기 엽 詩人

고려대 졸, Rotc 장교전역, 대성자율형고등학교 근무
녹조근정훈장수상, 송파문인협회부회장, 한국문인협회회원

유목민

조은재

떠난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모래 속에 묻은 씨앗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끓고 있는 것이니까

어찌 어렵게 일군 마을을 두고
계절 따라 떠날 수 있을까
그곳에는 웃음이 있고,
낡은 찻잔에 고인 따스함이 있고,
한때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하늘의 바람은 길을 바꾼다

떠난 자리엔
여전히 불씨 같은 그리움이 남는다
그리움은 새벽의 이슬처럼 스며들어
내 발자국을 적신다

삶은 끝없는 순례...
끝없는 생존...



작가 : 조은재 詩人

『심상』 2013년 상반기기신인상 등단
시집 <민들레 기개>



구름 바퀴

차효범

새로운 구입으로
구석구석 빛이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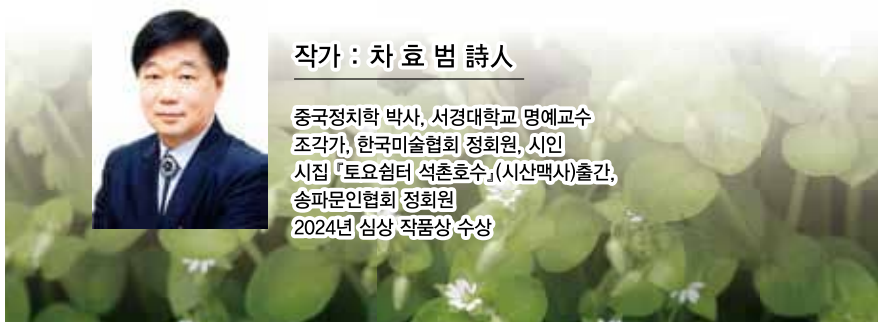
두손 닳도록 모아서
곳마다 편리를 달았다

두 다리 얹어서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은 대신 흰 구름만
날려 준다

온몸에 별꽃*이
눈송이처럼 내려앉는다

*별꽃: 두해살이풀로 높이 30센티미터 정도이고, 늦봄에 흰 꽃이 무리 지어 핀다.
주요 꽃말은 희망이다.



작가 : 차 효 범 詩人

중국정치학 박사, 서경대학교 명예교수
조각가,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시인
시집 『토요섬터 석촌호수』(시산책사)출간,
송파문인협회 정회원
2024년 심상 작품상 수상

들꽃 향기

최균희 작사
이재석 작곡

실바람에 실려 오는 이름 모를 들꽃 향기
그윽하게 다가오네. 수줍은 모습으로
어느 날 문득 당신이 그리워지면
휘파람을 불면서 산길을 거닐어요.

강바람에 실려 오는 싱그러운 들꽃 향기
갈대숲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손짓 있어
어느 날 문득 당신이 보고파지면
물새 소리 따라서 갈대숲 거닐어요.

아~ 싱그러운 들꽃 향기
내 마음을 설레게 하여
숲길로 오간 하네
향기 따라 찾아가면 당신이 있을까요?



작가 : 최 균 희 詩人, 동화작가, 소설가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화 당선
(사)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사)어린이문화진흥회 교문, 송파문인협회 교문
창작동화집, 장편소설 등 저서 37권

허수아비와 소년

최균희 작사
신귀복 작곡

1
 황금물결 출렁이던 널따란 벼논은
 어느새 까만 흙바닥 드러내고
 텅 빈 들판에 허수아비
 혼자서 쓸쓸히 서 있다.
 벌써부터 늦가을 찬바람은
 살랑살랑 옷깃을 파고드는데
 참새 쫓던 소년은 어디 갔을까?
 흙 팔매질 힘들어하며
 줄곧 허수에게 부탁했었지
 허수야, 허수야! 네가 새를 잘 보아야
 벼농사가 풍년 들고 풍년이 들어야만
 내가 상급학교 갈 수 있단다.

2
 그토록 애먹이던 알곶은 참새들
 지금은 어제 일인 양 날아가고
 메마른 들판엔 허수아비
 외로이 줄면서 서 있다.
 한숨 섞인 소년의 혼잣말 소리
 새록새록 가슴에 파고드는데
 참새 쫓던 소년은 어찌 됐을까?
 들녘 찬바람 이겨내며
 종일 기다리고 서 있겠지.
 후워이, 후워이! 목 아프게 외쳐대며
 꾸념하던 그 소년을 오늘도 잊지 못해
 마냥 가슴앓이 날이 저문다.



작가 : 최 균 희 詩人, 동화작가, 소설가

197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사)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사)어린이문화진흥회 고문, 송파문인협회 고문
 창작동화집, 장편소설 등 저서 37권

감 기

최성준

1

눈도 없이,

2

눈이 내린다

보고 싶어

3

눈길 주고
눈두덩 비비고 있다

문고리

방바닥에 매달려

4

부르르,

덜컹덜컹

5

그 틈에,

온돌 밑으로 하얀 연기
방고래 타고

굴뚝

6

콜록

눈 없이

(시인의 말)

석촌호수 벚꽃길에 현대인의 결핍과 모순이 눈치 없이 찾아들었습니다.
“눈 없이” 다음에 무슨 말이 생략되었을까, 벚꽃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작가 : 최 성 준 詩人

계간 「시 창작」 등단
글벗나루 감사

한 송이 꽃, 다시 보니

하갑문

멀리서 보면
늘 빨간 꽃의 색깔에 묻혀
웃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바짝 다가서니
암술을 내려보는 긴 수술에 작은 이슬이 맺혀 있다
소음을 지우고
귀 기울이니 그의 울렁임이 들린다

웃는 듯 우는 듯
잡히지 않는 표정
아무에게나 풍기지 않는 향기

읽어도 읽어도 속내 드러내지 않는
바라보기만 하는
손이 닿지 않는 벼랑 위의 꽃

오늘도 어제처럼
꽃 같은 시 한 편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루를 끝내지 못한다



작가 : 하갑문 詩人

2014, 문학나무 시 등단
2022, 시집 『텅 비었니 가득 찼니,』
제4회 문학나무숲상 시 부문 수상

겨울 분수

한운희

솟구치던 기억마저
얼음장 아래 묻은 채
분수가 서 있다
구겨진 낙엽들이 바람을 몰며
광장을 떠돈다
너는 한때
은빛 비늘을 번뜩이며
하늘로 뻗던 투명한 함성이었다
함성의 끝자락에 찍어낸 무지개였다
여름의 이미지를 식이며
층층이 깨지던 물빛
찰방거리던 아이들의
젖은 비지 끝에서 번지던 웃음소리
기늘게 날 세워 오르다
둥글게 풀려 돌아오던
낮은 획귀



작가 : 한 운 희 詩人

강화도 출생
심상문화회 이사
시집 『우로보로스의 원』

경 2026 송파문인협회 정기 시화전 **축**

주제: 석촌호수 벚꽃에서 찾는 시의 멋

일시: 2026년 3월 30일 (월) ~ 4월 13일 (월) 장소: 석촌호수 서호

송파문인협회 Writers Association of Songpa

경 2026 송파문인협회 정기 시화전 **축**

주제: 석촌호수 벚꽃에서 찾는 시의 멋

일시: 2026년 3월 30일 (월) ~ 4월 13일 (월) 장소: 석촌호수 서호

송파문인협회 Writers Association of Songpa



송파문인협회 연혁(沿革)

1992~2026(34년)

■ 1992

10. 13 송파문학회 창립(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위너스오피스텔)
초대회장 김해성(시인, 1·2기, 1992.10.01.~1996.09.30.)
- 명예회장 차범석(희곡)

■ 1993

05. 15 《송파문학》 창간호 발행

■ 1995

10. 27 《송파문학》 2호 발행(송파구 가락분동 79-4 세화오피스텔 806호)

■ 1996

09. 10 송파문학회 사무실 이전(송파구 잠실동 84번지 송파문화원 202호)
09. 20 《송파문학》 3호 발행
- 송파문학회 최초 하계 세미나(강원도 평창 발제 유금호 교수, 오준 시인)
10. 01 유재용 회장(소설, 3·4기, 1996.10.01.~1999.03.31.)

■ 1997

06.16 제1회 전국청소년시낭송대회(장소: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
송파문학회 2회 하계 세미나 개최
08.10 《송파문학》 4호 발행

■ 1998

05. 09 송파문학회 정기총회 개최(장소:남한산성 남한장)
07. 01 송파문학회 시락회(詩樂會) 활동(주관: 박건호)
- 박재삼 시인, 조병화 시인, 최백호 가수, 이대현 가수 참여
11. 25 《송파문학》 5호 발행

■ 1999

04. 01 유금호 회장(소설가, 5·6·7대, 1999.04.01~2005.03.31)

■ 2000

04. 01 《송파문학》 6호 발행

■ 2001

06. 16 송파문학회 7회 하계 세미나 개최(황우방, 하남 소재)
- 「농촌소설과 생각의 다변성」(최기인 소설), 「문학과 성」(김진돈 수필가)
12. 16 《송파문학》 7호 발행

■ 2002

10. 01 송파문학회 홈페이지 운영
11. 25 《송파문학》 8호 발행

■ 2003

07. 16~07.17 송파문학회 9회 하계 세미나 개최(양평 참좋은생각)
12. 05 《송파문학》 9호 발행

■ 2004

04. 04 송파문학회를 송파문인협회로 개칭(유금호 회장)
06. 16 송파문인협회 10회 하계 세미나 개최(하남 고골)
12. 13 《송파문학》 10호 발행

■ 2005

02. 24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송파문화원 강당)
박영우 회장(시인, 8·9대 2005.01~2009.03.31)
12. 20 《송파문학》 11호 발행(표지에 2006년으로 표기 시작)
12. 26 11호 출판기념 및 송년의 밤(방이동 허드슨 호크)

■ 2006

07.15 송파문인협회 12회 하계 세미나 개최(하남 고골)
- 「작가, 위기, 작품」(유재용 소설가),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정호승 시인)
12. 22 《송파문학》 12호 발행(표지에 2007년으로 표기)
12. 28 12호 출판기념 및 송년의 밤(방이동 박씨네)

■ 2007

01. 26 교보문고 잠실점 내 송파문인협회 코너 마련
06. 23 송파문인협회 13회 하계 세미나 개최(하남 은고개 공원)
- 「지배문화와 유배문화」(김용우), 「이 시대의 시」(김현숙)
「수필, 완성을 향해 가는 노정」(윤재천)
11. 10 송파가족백일장(아시아 공원)
12. 20 《송파문학》 13호 발행(표지에 2008년으로 표기)

■ 2008

04. 13 송파가족백일장 및 시화전 낭송회 개최(석촌호수)
06. 23 송파문인협회 14회 하계 세미나 개최
-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다시 카오스로」(이승훈 시인, 강상희 평론가)
12. 20 《송파문학》 14호 발행(표지에 2009년으로 표기)

■ 2009

04. 01 김진돈 회장(시인, 10·11대, 2009.04.01.~2013.03.31)
11. 07 제1회 한성백제백일장 개최(김진돈 회장)
12. 16 《송파문학》 15호 발행(표지에 2010년으로 표기)
- 15호 출판기념회 및 제1회 문학나눔콘서트(송파도서관)
- <그림과 시의 만남> 전시회

■ 2010

06. 02 송파문인협회 사무실 이전(송파동 15-2번지 송파구사설공단)
06. 12 송파문인협회 15회 하계 세미나 개최(하남 은고개 공원)
- 「정리문학, 순문학 그 경계의 미학」(송준영 시인)
07. 23 <휴과 시의 만남> 전시회(올림픽파크텔)
09. 01 <시, 화, 器, 愛> 전시회 및 낭송회(송파도서관 다송갤러리)
09. 13 제2회 한성백제백일장 실시
11. 05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김유정 문학관)
11. 23 《송파문학》 16호 발행(표지에 2011년으로 표기)
11. 25 16호 출판기념회 및 제2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및 문학나눔콘서트(송파도서관 아트홀)

■ 2011

03. 25 정기총회 개최(가락동 가운예식 뷔페)
07. 04~07. 10 <글이 열리는 풍경전>(송파도서관 다송갤러리)
07. 06 송파문인협회 시낭송회 <시(詩)가 흐르는 저녁> 개최
- 정기세미나 : 「문학의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강사: 최동호 시인)
11. 24 《송파문학》 17호 발행(표지에 2012년으로 표기)
11. 30 17호 출판기념회 및 제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송파문화원)

■ 2012

06. 13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나를 찾아 떠나는 시화전>
- 정기세미나 : 「시는 온몸을 사용한다」(김기택 시인)
11. 24 《송파문학》 18호 출판기념회(표지에 2013년으로 표기)
제4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송파도서관 다송갤러리)

■ 2013

04. 01 최균희 회장(동화작가, 12·13대, 2013.04.01~2017.03.31)
06. 01~06. 02 송파북페스티벌 참가
06. 17~06. 24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풍경, 시를 품다>
- 정기세미나 : 「시의 이해와 활용」(박주택 시인)(송파도서관 다송갤러리)
10. 03~10. 06 한성백제백일장 현장 접수, 송파북페스티벌 시낭송회(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11. 28 《송파문학》 19호 발행(표지에 2014년으로 표기)
11. 29 19호 출판기념회 및 제5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송파도서관 다송갤러리)

■ 2014

03. 19 정기총회 개최(문정동 한식집)
06. 12~06. 14 송파문인협회 상반기 시화전 <詩 자연과 하나되다>(송파문화원) 및
주인 시낭송회 개최, 정기세미나 : 「신들에 대한 반역」(박찬일 교수)
10. 04 문학기행 <윤중주 문학관>
11. 28 송파문학 20호 발행(표지에 2015년으로 표기)
11. 28 송파문학 20호 출판기념회 및 제6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송파글마루도서관)

■ 2015

- 03. 10 정기총회 및 제13대 회장단 선임(문정동 한식집)
- 05. 07 시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 승인
- 06. 24~06. 27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 및 도자기 시화전 <도자기 속에 핀 詩> (송파문화원 로비) 「작가는 누구인가」(이승우 소설가)
- 08. 22~08. 23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진도 일대)
- 10. 17~18 송파북페스티벌 참가 및 저자 사인회(평화의 문 광장)
- 11. 28 송파문학 21호 발행(표지에 2016년으로 표기)
- 11. 28 송파문학 21호 출판기념회 및 제7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 (송파문화원)

■ 2016

- 03. 22 정기총회 및 제13대 회장단 선임(산들해)
- 06. 25~06. 30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 및 부채 시화전 <부채살에 핀 詩> (송파도서관) 문학작품의 퇴고 이야기」(김중상 동화작가)
- 10. 15~10. 16 송파북페스티벌 참가 및 저자 사인회(평화의 문 광장)
- 10. 29~10. 30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부안 고창 일대)
- 11. 26 송파문학 22호 발행(표지에 2017년으로 표기) 출판기념회 및 제8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 (송파문화원)

■ 2017

- 03. 17 정기총회 개최(쌍용프라자 한적식), 김현신 회장(시인, 14·15대 임기)
- 06. 07 송파문인협회 포럼 및 각 분과별 모임 활성화 방안 논의
- 07. 01~07. 07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 및 시낭송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화전 <詩가 흐르는 오브제 시화전>(송파도서관) 「공동체 기억으로서의 새로운」(강사: 유성호 교수)
- 09. 21~09. 22 송파북페스티벌 참가 및 저자 사인회, 시화 전시(평화의문 광장)
- 10. 28~10. 29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통영 거제 일대)
- 11. 25 송파문학 23호 발행(표지에 2018년으로 표기)
- 11. 25 송파문학 23호 출판기념회 및 제9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 (송파문화원)

■ 2018

- 03. 21 정기총회 개최(잠실 길손정)
- 04. 08 제1회 벚꽃축제 시 콘서트(김현신 회장, 석춘호수 수변무대)
- 07. 07 ~ 07. 12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 및 시화전[詩꽃 우리를 피우다](송파도서관) 「자유인의 초월적 상상력, 장자」(전영태 문학평론가)
- 09. 01 송파문인협회 포럼 및 각 분과별 모임 활성화 방안 논의
- 10. 21 ~ 10. 22 송파북페스티벌 참가 및 저자 사인회, 시화 전시 (평화의문 광장) 문화체험 활동(원춘옥 캘리그라피)
- 송파문인협회 저자와의 만남(최규희,이주영,구희남,조경현,손경현,이은수,신호현)
- 10.27 ~ 10. 28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속초 및 원대리 자작나무 숲)
- 11. 24 송파문학 24호 발행(표지에 2019년으로 표기) 출판기념회 및 제10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송파문화원)

■ 2019

- 03. 16 정기총회 개최(잠실 가배정)
- 04. 06 제2회 벚꽃축제 시 콘서트(석춘호수 수변무대) <詩와 음악을 함께 나눠요>(박성수 구청장 시낭송 - 김소월의 '먼 후일')
- 06. 01. ~ 05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 및 시화전 <문학의 현대적 낭만성 재현>(송파도서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여편네 인식」(맹문재 교수)
- 08. 17 송파문인협회와 함께하는 공연 관람 후기 공모전 <김마리아를 아십니까> 공연 관람 후기(석춘호수 놀이마당)
- 10.26 ~ 10. 27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이효석, 박경리 문학관, 박건호 문학공원)
- 11. 20 송파문학 25호 발행(표지에 2020년으로 표기)
- 11. 21 송파문인협회 사무실 이전(송파구시설공단에서 구청 부속 건물, 올림픽로 326)

■ 2020

- 08. 28 송파문인협회 사무실 이전(구청 부속 건물에서 송파예술마루)
- 11. 13 송파문학 26호 발행(표지에 2021년으로 표기)
- 11. 14 송파문학 시화전 <패데믹 시대 시의 힘>展 및 제12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제26호 출판기념회(송파구청 4층 강당)

■ 2021

- 04. 01 이원우 회장(시인, 16대 임기)
- 송파문인협회 상임고문 유금호, 상임이사 오창제 임명
- 10. 07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온라인 ZOOM으로 진행) 「내 삶이 세상의 중심 이야기다」(이순원 소설가)
- 10. 01 ~ 10. 20 송파문인협회 시화전(총 148작품 전시) 전시장소: 송파드레길/ 잠실나루역 방향 길가/ 광평교/ 장지근린공원 입구
- 송파문학 27호 발행(표지에 2021년으로 표기, 출간 당해연도로 표기 전환)
- 11. 26 송파문인협회 사무실 이전(송파예술마루에서 송파구민회관 2층)
- 12. 28

■ 2022

- 07. 22 송파문인협회 경과보고회(송파구민회관 2층)
- 08. 11 송파문인협회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모임(송파구민회관 2층)
- 10. 21 ~ 10. 22 송파문인협회 문학기행(보령 문화의 전당, 홍성문학관)
- 11. 03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 창간호 발간

■ 2023

- 02. 23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송파구 마포숯불갈비)
- 04. 09 석춘호수 벚꽃축제 詩 콘서트
- 10. 23 ~ 10. 28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 10. 28 송파문인협회 세미나 및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 2024

- 02. 27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송파구민회관)
- 03. 27 ~ 03. 31 석춘호수 서호 시화전 54점 전시
- 06. 08 송파문인협회 공주 공산성, 나태주문학관 문학기행
- 11. 07 송파문인협회 세미나 및 한성백제백일장 · 제1회 송파문학상 (수상자 안서경, 민금애) 시상식, 문학나눔콘서트

■ 2025

- 02. 27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 및 제18대 회장 전세중 선출, 72명 참석 (전세중 · 최돈애 경선, 송파문화원)
- 03. 26 ~ 4. 14. 석춘호수 서호 벚꽃축제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58점, 3주간 전시 제2호 송파문인협회 시화집 발간(70쪽)
- 04. 22 송파문인협회 제17대 이원우, 제18대 전세중 회장 이 · 취임식, 68명 참석(송파문화원)
- 05. 19 서울 구민신문에서 송파문인협회 회원 작품 월요일마다 주1회 게재(1461호)
- 06. 14 송파문인협회 회장 전세중 외 14명 구리시 동구릉 문학탐방(개성집)
- 07. 25 2025 제31호 『송파문학』 원고 취합, 참여 회원 76명(시59, 수필7, 소설10)
- 08. 23 제17회 한성백일장 응모작품 180편(운문113, 산문67) 일반부 · 학생부 수상자 10명 선정
- 09. 12 송파문인협회 영월문학기행(김삿갓문학관 · 관풍헌 · 단종역사관 · 청령포), 41명 참석
- 09. 19 제2회 송파문학상 발표, (시부문: 이원우, 소설부문: 최규희), 심사위원: 김호운, 유성호
- 09. 26 ~ 28 제25회 한성백제문화제 올림피아공원 부스2개동 참여(저자 사인회, 시창작 지도)
- 10. 14 송파문학 국립중앙도서관 ISSN 연속간행물 등록(발행처: 송파문인협회)
- 11. 04 송파문인협회 정기세미나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 비교 고찰」(김호운 소설가) 제2회송파문학상시상(시부문이원우,소설부문최규희)
- 제17회 한성백일장 10명 시상(일반부 대상: 전진희, 학생부 대상: 안유찬) 문학나눔콘서트: 가곡 소프라노 임정화, 바리톤 송기창 출연, 시낭송 홍성훈
- 12. 05 송파문화예술회관 2층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입주 (송파예술, 송파문인협회, 송파시인 작가협회, 3개 단체)

■ 2026

- 01. 24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 50명 참석(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
- 03. 16 국립중앙도서관에 송파문학 7호 2권, 9호 2권, 10호 1권, 12호 1권, 13호 1권 납본
- 03. 30 ~ 4.13. 석춘호수 서호에서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51점 전시 제3호 송파문인협회 시화집 발간(64 쪽)

2026

제3호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

석촌호수 벚꽃에서 찾는 시의 멋

새봄이 오는 길에

얼었던 겨울 풀어 헤치면

바람 타고 입가에 꽃잎 붙어요

석촌 호숫가에 초록이 왔다고

귓속말로 간질간질

2026. 3. 30.(월) ~ 4. 13.(월)





2026. 2. 24. 송파문인협회 정기총회(송파여성문화회관)




2025. 11. 4 송파문학31호 출판기념회(송파여성문화회관)

2026. 제 3호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인쇄일 2026년 3월 26일

발행인 전세중
편집인

편집위원 김사라, 양순복

발행처  송파문인협회
Writers Association of Songpa
(우)05584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송파문화예술회관 2층 201호)
전화 02-414-3512, 팩스 02-414-1062
<https://cafe.daum.net/songpaper/>
E-mail songpa1992@daum.net

제작처 지오엠
(우)1686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94 남곡빌딩 207, 208호
전화 070-3687-0339
E-mail best_gom@naver.com

© 송파문인협회 작가 시화집


ISSN 3092-5193



비매품

9 773092 519300 2

ISSN 3092-5193



새봄이 오는 길에

얼었던 겨울 풀어 헤치면

바람 타고 입가에 꽃잎 붙어요

석촌 호숫가에 초록이 왔다고

귓속말로 간질간질

